



김성면 루카 | 가수(K2)

I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삶

제 신앙의 모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머니의 외삼촌이신 최민순 신부님은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로 재직하셨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비롯한 다수의 번역서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최민순 신부님은 성인들의 영성에 관심을 보이셨고 ‘주의기도’, ‘대영광송’ 등 기도문을 번역했고 성가를 작사하셨을 만큼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던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느라 성당에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어른들 종교를 따라야 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태어났을 적에 어머니는 몰래 당산동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친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성당을 찾았습니다. 왠지 하느님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화를 하듯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동성고등학교 성령세미나 미사에 참석하였을 적에 우연히 말씀사탕을 뽑게 되었는데 거기에 적혀있던 “나 너를 이끌어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시편 32,8)라는 말씀이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성가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부를 때마다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오, 주여. 이토록 돌보십니까’라는 부분에서는 항상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멀리했을 때조차 저를 이끌어주셨다는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루카 15,21) 그리고 혼란에 빠질 때마다 성령께 바치는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성령님, 흘러넘치는 은총의 보고여, 저를 가르치시어 고통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하느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 앞에서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좋은 뮤지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저의 어두운 내면은 더욱 감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던 중 청년성서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솔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저는 참된 공동체 의미를 깨달았고 가난한 마음도 나누면 풍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듯이 우리가 겪는 고통도 하느님이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 주시고 때리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욥 5,18) 그러니 우리는 진솔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이 저희를 돌보시고 가르치실 테니까요.

